

## <한국후꼬꾸, 현대기아차그룹 '올해의 협력사' 선정 / 품질·초정밀 생산기술 인정>



▲ 현대기아차그룹 '올해의 협력사' 수상사진.(자료=FKC 제공)

자동차부품 전문 제조기업 한국후꼬꾸가 글로벌 자동차 선도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'2024년 올해의 협력사(SUPPLIER OF THE YEAR 2024)'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.

신차개발부문 올해의 협력사는 고객사(현대차기아) 신차개발 시 우수한 선행품질 및 양산초기 품질 활동, 신차프로젝트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한국후꼬꾸는 선행개발 강화를 위한 프로세스 및 조직 개선과 더불어 다양한 품질확보 노력 등을 통해 신차 양산초기 '필드 클레임 무결점 달성'으로 고객사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받게 되었다.

이번에 '2024 올해의 협력사 신차개발부문'을 차지한 한국후꼬꾸(대표이사 권익준)는 1987년부터 지금까지 전 생산라인 자동화 시스템 및 완벽한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현대차, 기아, 현대모비스, 스텔란티스, 지엠, 포드 등 국내외 완성차 업체에 초정밀 부품을 연간 3,100만개 수준으로 생산해 납품하고 있다.

한국후코꾸는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은 물론 사업다각화에 성공하여 전기자동차,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중요 기관인 배터리시스템(BSA)의 전자제어 핵심부품(PRA) 및 냉각소재(갭필러) 등을 생산하여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핵심부품으로 최고의 품질관리 능력과 초정밀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.

내연기관자동차에서 친환경자동차로의 패러다임 변화는 최고의 품질과 대량생산 제조기술을 갖춘 한국후코꾸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. 끝.